“전기료 내기도 벅차”…자영업자 ‘최악의 해’

광주·전남 상반기 체납 5000곳 넘어
호당 미납액수도 크게 늘어 70만원
코로나 장기화 매출 급감 폐업 속출
중기 정책자금 사고금액도 최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000원 아메리카노’로 입소문이 난 A(42)씨의 커피전문점은 7년 간의 영업을 끝내고 지난 5일 임대 안내문을 붙였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월 매출 3000만원을 찍을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매출은 476만원으로, 84% 급감했다.

고정 운영비는 월 평균 12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주객은 전도된 지 오래다. 건물주는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감안해 300만원이었던 월세를 지난해부터 220만원으로 내렸지만 부담은 여전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6명이었던 종업원은 모두 떠나고 A씨 홀로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왔다.

그는 “건물주가 월세를 더 깎아주겠다며 만류했지만 폐업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며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면 50원 가량이 남는데, ‘1리터(ℓ) 커피’는 한 잔당 25원 손해가 난다. 더 이상 적자를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폐업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비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은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올 상반기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5000명이 넘었고, 중소기업이 대출 받은 정책자금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도 올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일반용 전기요금 미납호수는 평균 5030호에 달했다.

일반용 전력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상가건물과 사무실 등에서 쓰인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전기요금 납부가 밀린 5030호가 체납한 금액은 총 35억4700만원이다. 호당 70만5000원을 내지 못한 셈이다.

상반기 기준 일반용 전기요금 미납호수는 2017년 5335호→2018년 5554호→2019년 5527호→2020년 6227호 등으로 지난해는 최근 5년 내 최다 미납호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일반용 전기요금 호당 미납액은 2017년 32만8000원→2018년 42만2000원→2019년 57만3000원→2020년 61만9000원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는 70만5000원으로, 호당 70만원을 넘겼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호당 미납액은 23.0%(13만2000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제주지역(42.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평균 증가율(8.5%)을 크게 웃돌았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이제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대책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방역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빌린 정책자금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은 올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정책자금 사고금액은 총 201억원(광주 38억·전남 163억)으로, 이미 지난해의 79.7%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책자금 사고금액은 광주 100억원·전남 252억원 등 252억원으로, 전년(219억원)보다 14.9%(33억원) 증가했다.

전국 사고금액은 2019년 5188억원에서 지난해 5683억원으로 평균 9.5% 증가했는데, 전남 증가율은 평균은 크게 웃도는 25.4%였다. 광주는 1.9% 증가했다.

이주환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이 장기연체 또는 도산을 하면서 대출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ESG 위원회’ 출범

내·외부 전문가 22명…친환경·윤리 경영 방향 모색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환경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ESG 경영’을 전담할 기구를 새로 출범시켰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해양에너지 ESG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된 ESG 위원회는 ESG중심의 바람직한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 환원이나 윤리적인 기업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박성수 미래남도연구원 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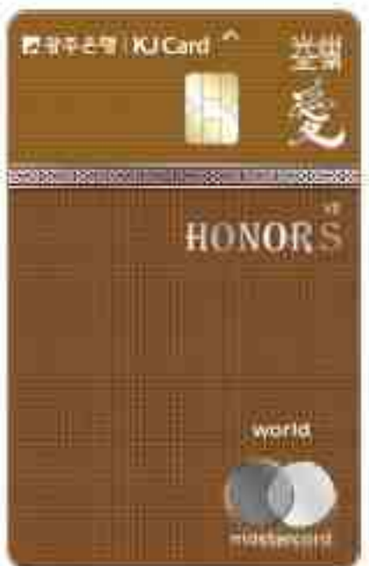
부위원장에는 송경용 동신대 대학원장과 이숙희 ㈜그린이엔에스 대표가, 사무총장에는 이용범 ㈜프로텍 대표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해양에너지 경영진 7명과 외부 전문가 1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에서 참여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다.

김형순 해양에너지 사장은 “공정한 거래관계와 환경 친화적 운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발 맞춰 이번 ESG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5일 열린 ‘해양에너지 ESG 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가 위원들이 집행부를 선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제공〉



광주은행 ‘광주·전남 애(愛) 사랑 아너스 V2 카드’ 출시

카드 이용금액 0.2% 기부

쓸수록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광주은행 ‘광주·전남 애(愛) 사랑 아너스 카드’가 새롭게 바뀌었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애(愛) 사랑 아너스 V2 카드’〈사진〉를 최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카드 혜택은 유지하고 바우처·포인트 적립·여가생활·포인트 전환·기부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했다.

이 카드는 지난 2018년에 출시해 3주 만에 1000좌, 5개월 만에 5000좌의 판매고를 돌파했다.

카드 이용금액의 0.2%는 연말마다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지난해까지 7억2000만원 상당이 전달됐다.

연간 20만원 상당 바우처(롯데·신세계·외식통합상품권·SK주유상품권 중 선택)가 주어지고,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1%, 해외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가 기본 포인트로 적립된다. 전국 주유소·충전소와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10% 포인트가 추가 적립된다.

또 전국 골프장과 영화관, 프로 야구 부문에서도 2500~5000포인트가 더 주어진다.

카드 이용객에게는 매달 추첨을 통해 KBS 교향악단, 광주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권을 제공한다. 유명 놀이공원에서는 50%, 중흥골드스파·금호화순리조트·디오션리조트·보성다비치콘도 입장권은 30~35% 할인된다.

적립된 광주은행 포인트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으며, 전 세계 13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ank.com)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송종욱 은행장은 “해당 상품은 그동안 지역민을 비롯한 출향민과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KJ카드만의 특화된 상품·서비스로 지역사랑과 금융생활 지원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내 벤처캐피탈 블라인드펀드 19일까지 위탁운용사 공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오는 19일까지 국내 벤처캐피탈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는 운용사 4곳을 최종 선정해 200억원씩 총 800억원을 약정할 계획이다. 투자분야 및 투자전략 등은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 대상 투자기구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기관 중 제안펀드 결성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30% 이상 출자가 확약돼야 지원할 수 있다. 설립 후 누적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핵심운용인력 중 1인 이상의 투자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해당한다.

사학연금은 오는 19일까지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1차 정량평가와 위탁운용사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의 2차 정성평가를 통해 운용사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 말 최종 확정 후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내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사업 발주 사망사고 낮은 건설사에 가점

근로자 사망사고율이 낮은 건설사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수주가 유리해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이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역시 12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 · 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